

더위와 사료부족으로 고전하는 스리랑카의 양계

스리랑카 편

<세계사금학회 한국지부>

“스리랑카”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세이론” 차를 생산하는 나라이며 우리에게는 “스리랑카”보다 “세이론”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나라는 인도 동남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나라로서 열대에서 아열대에 속하며 세계 2 차대전후 독립하면서 “스리랑카”로 부르게 되었다 국토면적은 6만 6천 평방km이며 한국의 1/3정도 밖에 되지않으나 인구는 1300만명으로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170불 정도로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나라이다 수도는 “코롬보”(Colombo)이며 가끔 세계의 비동맹국 수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여자주장을 가진 나라로 “반다라·나이케”수장이 집권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는 중립국이다

외형상 인도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우며 종교는 불교국인데 마을마다 불교사원이 있으며 저녁이 되면 향불에서 흘러나오는 향냄새가 찬지를 누빈다! 르타라!

“스리랑카”는 농업국으로 차, 고무, 야자유, 향료등이 주산물이고 4~7월은 우기에 속하며 8~3월은 건조기에 속한다. 이 나라의 평균기온은 25℃ 정도로서 농업지리적 여건을 보면 표1과 같다.

표고(標高)에 따라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있으며 지대별로 농작물의 종류도 다르다 축산은 중간지대 고지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지대에서는 건조하고 더워서 재래종축우와 물소가 주로 사육되고 있다

스리랑카 공화국의 축산현황을 보면 재래소(Sinhala)가 170만두이고 물소(buffaloes)가 73만두로서 축우(畜牛)가 240만두로 제일 많이 사육되고 있다 이나라 재래소 “싱하라”는 향주소와 같이 주로 役用으로 사용하나 농가의 우유공급원으로서의 젖소로도 사육되고 있다 젖생산량은 재래종이 연간 570kg정도 생산하며 재래종과 홀스타인종과의 일대 잡종은 1,200~1,500kg정도 생산되어 정부에서는 일대잡종과 같은 교잡종을 장려하여 젖생산량을 높여 농가소득을 꾀하고 있다

이나라는 佛敎의 나라이기 때문에 쇠고기와

표1. “스리랑카”의 농업지리적 여건

지대별	표고 (m)	평균기온	강우량 (mm)	주산물
전지대(건조지대)	0~100	27℃	1,000~2,000	쌀
중간지대(습지대)	300~900	25℃	2,500~5,000	코코넛
고지대(중간지대)	900이상	16℃	2,000~3,000	추시및 차



〈재래종 소로 논갈이 하는 모습〉

패지고기의 수요가 높지않아 육류 생산보다는 젓생산에 축우개량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일반대중의 고기 수요도 늘고 있어 쇠고기 생산에도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돼지의 사육두수는 감소되고 있는데 주인인은 사료자원의 부족과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면, 산양을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에서는 젓산양(乳山羊)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젓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육되고 있다. 닭, 오리는 모두 합하여 700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양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 양계현황

“스리랑카”공화국의 양계현황은 1960년초반의 우리나라 양계와 같이 농가양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닭의 사육수수는 1975년말에 677만수이고, 오리는 2.5만수정도로서 평균 호당 10수미만의 양계수수이다. 품종은 재래종 과 개량종의 잡종이 대부분이며 농가에서는 재래종과 잡종을 많이 기르며 전업양계가만이 白色레구혼종, 뉴에햄프셔종, 로오드종 등을 사

1. 축산개항

표 2. 스리랑카의 축산현황

축 종	1965년	1975년	1975년 축산물생산량
축 우	(1,000수) 1,645	(1,000수) 1,718	(톤) 196,000
물 소	855	736	35,000
배 지	92	49	30,000
닭	5,221	6,770	17,000
오 리	35	23	(계란) 19,246
면 양	44	30	7,000
산 양	530	547	—

육하고 있다. 이 나라의 밀림지대에 가면 아직도 원시형의 들닭이 살고 있으며 “세이론야야제(Gallus hafayetti)라 불리우는 황갈색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 있다.

벗은 벗들래만 적색이고 중앙은 황색이며 부주익에는 흰반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1) 품종개량

“큰다사레”(kundasale) 지방에 위치하는 가금육종연구소는 닭개량을 목적으로 세워진 연구기관으로 연구소 부지가 약 30,000 여평에 연구관이상의 직원이 10여명 종사하고 있다. 보유 품종은 아용종의 “백색레구혼”종을 비롯하여 “로오드”종, “오스트라로오프”종, “갈색레구혼”종이 있었으며 육용종으로는 “백색록크”종, “백색코오니쉬”종, “운색서섹스”종 등을 사육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랑교배조합 선발시험을 통하여 능력이 우수한 일대잡종을 선발하여 교잡종 P. S를 종계장에 보급하며,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인 농가에게 F₁으로서도 공급하고 있다. 보급되고 있는 F₁으로서는 “로오드·혼”과 “레구로오프”라 하여 레구혼종과 오스트라 로프종을 교배한 일대 잡종을 농가에 보급 하며 육용종으로서는 백색록크종에다 코오니쉬수닭을 교배한 일대잡종을 보급하고 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부종계장에서 외국계 G. P. S를 수입하여 민간종계장에게 P. S를



〈농가 겸업양계의 사육광경〉

판매하고 있었으며 품종으로는 난용종으로 “바부콕” “세이버스타크로스” “하이라인” 등이며 육용종으로는 “코부” “하이브로” 등이 있다 이곳에서 닭의 능력검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계와 국산계간에 능력의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연간 산란수는 180~200개 정도이다. 이와같이 산란능력이 낮은 것은 무더운 기후관계와 사료의 품질이 좋지 않은데서 오는 결과라고 판단 된다

육계는 8주령 출하시 체중이 1.5kg 정도이며 사료효율은 3.0정도로서 비교적 능력이 낮은 편인데 이것 역시 사철 무더운 기후와 사료의 품질이 양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민간종계장에서는 외국계와 국산종계를 기르고 있었으며 일부 민간베이스로 P·S를 직접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정부 연구기관인 이곳 가금육종연구소에서 수입된 G·P·S·에서 생산된 P·S를 분양받거나 국산종계를 분양받아 부화하고 있다. 종계장의 규모는 3,000수정도의 규모이다

이곳 연구소에는 캐나다 원조를 통하여 설치된 최신형 10만개 입란용 “제임스웨이” 부란기 1대와 구형 “마스다비이스” 만개 입란용 10대를 설치하고 년중 부화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는 정부의 수지타산을 위하여 또는 연구비 조달을 위하여 어느정도 종계공급을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

(2) 일반양계

도시 근교의 일반 전업양계가의 규모는 500수정도이며 연간산란수는 150~180개이고 농가양계인 경우는 10~30수미만으로 방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간 60~100개정도 산란한다. 사육형식은 평사가 일반적이며 무더운 저지대에서는 대나무로 뚝방이 마루를 설치하여 마루위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부로이라는 도시근교 농촌에서 집약적으로 사육하며 농가당 4,000~5,000수 정도가 전업규모이다

육계능력은 8주시 출하체중이 1.5kg에 사료효율이 3.0이상으로 비교적 산란능력이 낮다.



〈채란 전업양계 사육광경〉

양계산물의 시세는 1976년 평균하여 대란 1개당 25원이며 육계는 생체 1kg당 500~600원, 그리고 초생추대는 무감별 1수당 120원 정도이다. 사료시세는 산란계사료 kg당 70원이며 육계사료는 85원정도 이다.

이나라 양계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사료이다. 특히 곡류사료와 동물성단백질사료의 부족은 심각하다. 주요사료자원은 쌀겨와 코코넛박이며 곡류로는 쌀래기, 조, 수수등이 있으나 사람이 먹을 식량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곡류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형편이다. 일반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식물성단백질을 주로하여 15%정도 되나 대사에너지는 kg당 2,000~2,300KCal정도이다.

“스리랑카”의 양계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기후가 덥고 사료자원이 부족한 점이며 다른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나라 정부에서는 열대 내지는 아열대지방에서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 돼지, 닭으로 개량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내열성에 강한 재래종과 생산능력이 높은 개량종을 교잡하여 내열성이 강하며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있다. 사료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인간식량과 경합이 적은 초식가축 증식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돼지나 닭과 같이 농후사료를 위주로 사양되는 가축은 농가양계위주로 사육하는 것을 권장하되 앞으로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축산식품의 수요증가를 보충하기 위하여는 증식이 빠르고 사료효율이 높은 양계 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